

1) 孟母斷機 (=斷機之教, 斷機) - <열녀전(列女傳) 모의편(母儀篇) 추맹가모(鄒孟軻母)>

鄒孟軻之母也 號孟母.

추씨 맹가의 어머니를 ‘맹모’라 불렀다.

<中略(중략)>

孟子之少也 既學而歸 孟母方績.

맹자(孟子)가 어렸을 때, 학문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맹자의 어머니는 베를 짜고 있었다.

問曰, 學何所至矣.

(맹자의 어머니가) 물었다. “학문(學問)은 어느 경지에 이르렀느냐?”

孟子曰. 自若也.

맹자가 말하였다. “처음과 같습니다.”

孟母以刀斷其織.

맹자의 어머니는 칼을 가지고 그 짜던 베를 끊었다.

孟子懼而問其故. 孟母曰,

맹자가 두려워하며 그 이유를 묻자, 맹자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子之廢學 若吾斷斯織也. 夫君子學以立名 問則廣知.

“네가 학업(學業)을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은 내가 이 베를 끊는 것과 같다.

무릇 군자(君子)는 배움으로 이름을 세우고, 물어서 지식을 넓힌다.

是以居則安寧 動則遠害.

이 때문에 살면서 걱정이나 탈이 없고, 움직이면(일을 하면) 해로움이 멀어지는 것이다.

今而廢之 是不免於廝役 而無以離於禍患也.

지금 내가 학문을 그만두면, 하인이나 일꾼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재앙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 廝役(시역): 짐 운반 등의 여러 일에 동원되는 잡역부를 뜻함.

何以異於織績而食.

길쌈하여 밥 벌어먹는 것에 대해 무엇이 다르겠느냐.

中道廢而不為 寧能衣其夫子 而長不乏糧食哉.

(내가) 중간에 그만두고 하지 않는다면, 어찌 장차 남편과 아들의 옷을 입히고, 항상 양식을 모자라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女則廢其所食 男則墮於脩德, 不為竊盜 則為虜役矣.

여자가 베를 짜서 생활하는 것을 그만두고, 남자가 덕을 수양하는 것에 태만하다면,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또한 종이 되어 남의 부림을 받게 될 뿐이다.”

孟子懼 旦夕勤學不息.

맹자가 두려워하며 밤낮으로 (늘) 부지런히 공부하였다.

師事子思 遂成天下之名儒.

자사(子思)를 스승으로 섬기고 가르침을 받았고, 마침내 온 세상에 유명한 유학자(儒學者)가 되었다.

☞ 師事(사사):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

君子謂孟母知為人母之道矣.

군자들은 ‘맹자의 어머니는 사람의 어머니가 되는 도리를 알고 있었다.’라 하였다.

2) 多多益善 - <사기 회음후열전>

信知漢王畏惡其能 常稱病不朝從.

한신(韓信)은 한(漢)나라의 왕이 그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미워함을 알고, 평소에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信由此日夜怨望 居常鞅鞅 羞與絳灌等列.

한신은 이로 말미암아 밤낮으로 분하게 여기며 미워하여 평상시에 불만이 쌓여갔고, 강후(絳侯)인 주발(周勃), 관영(灌嬰)과 같은 반열임을 부끄러워하였다.

居常(거상): 평상시. 보통 때.

信嘗過樊將軍噲 噲跪拜送迎 言稱臣 曰.

한신이 이전에 장군 번쾌(樊噲)의 집 근처를 지나는데, 번쾌가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맞이하였고 배웅하면서 (자신을) 신(臣)이라는 말로 일컬으며 말하였다.

大王乃肯臨臣.

“대왕께서 뜻밖에 신(臣)을 찾아오셨군요.”

信出門 笑曰.

한신이 문을 나와 웃으면서 말하였다.

生乃與噲等為伍.

“살면서 뜻밖에 번쾌와 같은 대오(등급, 서열)에 서게 되었구나.”

乃(내): ❶의외로. 뜻밖에. ❷이에. 곧. ❸도리어.

上常從容與信言諸將能不, 各有差.

한왕(유방)은 평소에 조용하게 한신과 함께 모든 장수들의 능력의 크기를 말을 하였는데, 각자 다름이 있었다.

從容(종용): 성격 또는 태도가 차분하고 침착함. 조용의 원말.

有差(유차): 차이가 있다. 구별이 있다. 서로 다르다.

上問曰. 如我能將幾何.

왕이 (한신에게) 물었다. “나 같으면 어느 정도 거느릴 수 있겠는가?”

信曰. 陛下不過能將十萬.

한신이 말하였다. “폐하(陛下)는 기껏해야 십만군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上曰. 於君何如.

왕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떠한가?”

曰. 臣多多而益善耳.

(한신이) 말하였다.

“신(臣)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뿐입니다.”

上笑曰. 多多益善 何為為我禽.

왕이 웃으며 말하였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데, 어찌하여 나의 포로가 되었는가?”

信曰. 陛下不能將兵 而善將將.

한신이 말하였다. “폐하는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없으나, 장수를 거느림이 뛰어납니다.

將(장): ❶거느리다. ❷장수. ❸장차.

此乃言之所以為陛下禽也.

이것이 곧 말하자면 폐하의 포로가 된 까닭인 것입니다.

且陛下所謂天授 非人力也.

또한, 폐하는(왕이라는 직위는) 말하는 바(소위) 하늘에서 주신 것이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 不言長短(불언장단) - < 이수광(李睟光) (지봉유설(芝峯類說)) >

昔, 黃相國喜微時, 行役, 憩于路上, 見田父駕二牛耕者, 問曰, “二牛何者爲勝?”

옛날에 황희 정승이 미천하던 시절에 여행을 하던 중, 길가에서 쉬다가, 농부가 두 소에 멍에하고 밭갈이하는 것을 보고, 묻기를, “두 마리 소 중에서 어느 것이 낫습니까?” 하니,

田父不對, 輟耕而至, 附耳細語曰, “此牛勝.”

농부가 대답은 하지 않고 밭갈이를 멈추고 이르러서,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하기를, “이쪽 소가 낫습니다.” 했다.

公怪之曰, “何以附耳相語?”

공이 그것을 이상히 여겨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

田父曰, “雖畜物其心與人同也. 此勝則彼劣, 使牛聞之寧無不平之心乎?”

농부가 말하기를, “비록 기르는 짐승이지만 그 마음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쪽이 낫다면 저쪽이 못한 것이니, 소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한다면,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公大悟, 遂不復言人之長短云.

공이 크게 깨달아, 마침내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